

石窟庵 佛像에 나타난 法衣 研究

金 貞 振

徐羅伐大學 패션디자인과 부교수

A Study on the Costumes of stone Buddhist image in the Sokkuram Cave Temple

Jung-Jin Kim

Dept. of fashion design, Sorabol College, Associate Professor.

(2000. 7. 21 투고)

ABSTRACT

Prime Minister Kim tae-song is said to have built this cave temple in the tenth year of the reign of King Kyongdok-wang(742-765) of Unified Shilla(751). The numerous stone Buddhist images in the grotto represent the best Buddhist figure of the Unified Shilla period and of all Korea.

The Sokkuram Grotto is composed of the main hall, entrance to the main chamber and antechamber in space. The main hall beyond the small antechamber is round and the ceiling is domed. Within the rotunda sits a majestic Buddha(Amitabha), 3.48m in height and 2.6m in width, carved in granite and facing east. Surrounding the main Seated Buddha are eleven-headed Avalokitesvara Bodhisattva, Manjusri Bodhisattva and the other three Buddhist images, Ten disciples, Buddhist figures in the ten Niches in relief.

An eleven-headed Avalokitesvara Bodhisattva of boundless mercy is sculptured on the wall behind the main Seated Buddha. Further guarding the Buddha are ten standing Arhans of the Disciples of Buddha. Next, two Devas, one on each side, stand guard. Two Bodhisattvas are the saints who are next to the Seated Buddha in importance, also one on each side. And, There are ten niches around the dome. They contain seven seated Bodhisattvas and one Vimalakirti(the name of a famous lay disciple of the Buddha). Two niches are empty.

Consequently, there are total thirty-eight Buddhist images in the Sokkuram cave temple. The Buddhist images have been regarded as masterpieces of Buddhist art and Shilla culture of Unified Shilla in the eighth century. The Buddhist images are represented very clear, elegance and beauty of detail skill

Key Words : Sokkuram, main Buddha, Avalokitesvara Bodhisattva, Deva,
Bodhisattva, Disciples of Buddha, Buddhist of niche

석굴암, 본존불, 십일면관음보살상, 천부상, 보살상, 10대제자상, 감실상

I. 序 論

석굴암은 우리의 문화유산 중 가장 대표적인 자랑거리로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도 등록된 소중한 문화재이다.

또한 그 조각의 종교성과 예술성에 있어서 우리 조상이 남은 가장 탁월한 작품이며 전 세계의 종교 예술사상 가장 우수한 유산인 것이다.¹⁾

본 석굴암에 대한 연구는 여러 학문 분야에서 심도있게 이루어져 온 반면 복식사적인 면에서의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본 연구에 임하게 되었다.

석굴암에는 많은 불상들이 안치되어 있어 통일신라시대의 불상의 양식적 특징과 법의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석굴암의 구조 상 전실, 비도, 주실 중에서 주실에 있는 24구의 불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다만 연구의 제한점은 석굴암에 출입이 통제되어 있는 관계로 모든 연구자료는 사진 자료를 통하여 이루어 졌음을 밝혀두며, 그림으로 인용된 도식화는 황수영의 「석굴암」에서 인용하였다.

본고에서는 불상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기 전에 석굴암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석굴암의 역사적 배경과 구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서술하고, 각 불상에 대하여 의습의 특징을 통하여 통일신라시대 법의 양식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II. 石窟庵의 歷史的 背景과 構造

1. 歷史的 背景

석굴암은 신라시대 경덕왕 10년(751)에 재상 金大城에 의하여 창건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즉 <三國遺事>에 따르면, 김대성은 현세의 부모를 위하여 불국사를 세우고,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굴암을 세워서 新琳과 表訓을 청해 각각 머무르게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절은 김대성의 개인적 발원보다는 나라를 수호하려는 국찰과 경덕왕의 원찰로서 창건되고, 경영되었다고 추정된다.²⁾

특히 토함산이 왜구의 침입을 막는 제일 관문으

로 국토 방위상의 요충이었으며, 당시 경덕왕 때는 정치, 문화 등 각 방면에서 신라 최고의 융성기를 이룩했던 시기였고, 또한 통일이 완성되고 당과의 갈등이 해소되었으며 국내외 정세 또한 평화 안정기로 내적인 충실기이므로 불교문화 또한 찬란히 꽃을 피우게 됨으로써 거족적인 발원과 신라인의 신앙적 소산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창건된 석굴암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보수를 거치게 된다. 그 첫단계로 조선시대의 수리를 보면, 1703년(숙종29) 從悅이 석굴을 중수하고 굴 앞의 돌계단을 쌓았으며, 1758년(영조34)에 大謙이 중수했다. 丁時翰(1625-1707)의 <山中日記>에 따르면, 1688년(숙종14) 5월 15일 그가 이 고을을 찾았을 때에는 석굴의 상태에 이상이 없었고, 佛國寺·骨窟庵과 더불어 당시에 잘 알려진 순례관광 경로였다고 한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곳을 방문하여 예술 작품을 남겼는데, 謙齊 鄭善(1676-1759)은 1733년(영조9)에 그린 <嶠南明勝帖> 2권 중에 『慶州骨窟石窟圖』를 남긴 것으로 유명하다. 이 畫帖은 석실 입구에 전실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어 최근의 복원공사에서 목조 전실을 첨가하게 했으며, 조선말기에 와서는 蔚山 兵使 趙巡相이 石窟을 크게 중수했다.

일제시대에 들어 1912년 조선총독부에서는 데라우찌 마사다케가 방문을 한 후 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3차에 걸쳐서 중수가 이루어졌다.

① 1차 중수(1913~1915)

석굴 천정을 완전히 해체하고 다시 조립하여 3년에 걸쳐 공사를 하였으나 본래 석굴은 이중으로 구성되어 석굴내부의 공기유통이 가능하였으나 중수가 그렇지 못하여 석재에 손상을 주게 되었음.

② 2차 중수(1917)

석굴상부 봉토면에 대한 응급조치로 汚濁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되지 않은 채 중수됨.

③ 3차 중수(1920~1923)

2차 중수 이후에도 누수, 침수현상이 계속되어 천장 콘크리트 벽에 방수용 아스팔트 작업을 실시함.

1945년 광복후에는 1946, 1953, 1957년 뚜렷한 대책이 없이 중수가 실시되어 손상을 초래함에 따라,

1958년 1월 처음으로 석굴암 보수공사 심의위원회가 결성되어 거듭 중수가 되는 가운데 1962년부터 1964년까지 무려 3년 동안은 석굴암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준비공사로 완벽한 복원 작업을 실시하여 제 문제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1971년 문화재 관리국에서는 석굴보존에 관람객 출입이 해롭다하여 유리창을 설치하여 석굴암의 본존불 모습만 멀리서 볼 수 있게 하였다.³⁾

이렇게 김대성은 신라 최대의 석굴 법당을 조성함으로써 인도에서 비롯되어 중국을 거쳐 온 길고 먼 석굴 경로의 종착점에다 최대의 걸작을 이룩한 것으로,石窟의 규모가 비록 작다고는 하나 동양의 많은 석굴 중에서 금강석같이 빛나고 있으니 신라 창건 이래 우리의 정성과 믿음을 한 몸에 받아들인 문화재인 것이다.⁴⁾

2. 石窟庵의 構造

석굴암은 主室, 扉道, 前室로 구성되어 있다. 전실은 장방형으로 좌우의 남북벽에 4구씩의 八部神衆이 마주보게 모셔져 있고 전면을 향한 좌우벽면에는 입구를 향해 金剛力士가 각 1구씩 항상 비도를 수호하고 있다.

비도는 전실에서 주실로 통하는 긴 통로로 되어 있는데 좌우에는 각 2구씩 4구의 四天王이 조각되어 있다. 상부는 아치형으로 덮여 있으므로 원래 전실에 목조건축이 없었을 당시에는 바로 여기서부터 석굴의 내부인 주실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고 한다.

주실의 입구에는 좌우에 二基의 石柱가 있어 비도와 주실을 구분하는 경계역할을 하고 있다. 주실은 형태가 원형으로 직경이 좌우 6.84m, 전후 6.58m이다. 중앙에서 약간 뒤로 처진 곳에 石蓮大座가 설치되어 있고 본존불이 結跏趺坐의 자세로 안치되어 있는데 그 높이가 약 5m에 이르는 거대한 것으로 그 조각 예술성 또한 뛰어난 것이다. 주실의 주위에는 10개의 腰石이 굴의 벽을 이루고 있고 그 위에 15면의 화강암 石壁을 병렬시켜 각 면에 얽은 부조의 石像들이 조각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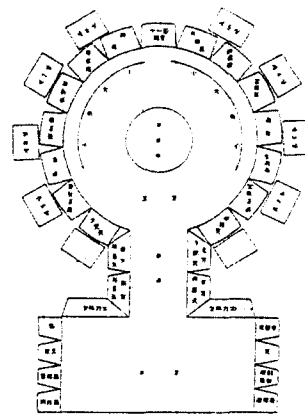
본존불 바로 뒤 중앙에는 십일면관음보살의 입상

이 있고, 그 좌우로 각각 5구씩 총 10구의 십대제자 입상이, 다시 그 좌우로 각각 2구씩의 天部像과 菩薩像이 조각되어 있는데 이곳이 바로 주실의 입구인 것이다.

또한 십일면관음상의 위쪽으로는 複線單瓣의 光背가 새겨져 있고, 그 좌우로 작은 龕室이 각각 5개씩 만들어져 있는데 그 안에는 문수, 유마, 지장 등 여러 보살상들이 감실상으로 안치되어 있다. 현재는 8구뿐이며 2구는 반출되고 감실만 주인없는 집처럼 비어 있다.

천장은 교묘하게 쌓여진 석재에 의하여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아치형으로 만들어져 있다. 本尊佛 바로 위에는 하나의 큰돌을 중심으로 웅장하고 화려한 單線復瓣의 연꽃을 새겨 놓았다.⁵⁾

주실 안의 石像은 모두 24구이고 비도와 전실을 모두 합하면 석굴암에는 총 38구의 불상들이 있다. (그림 1)



(그림 1) 석굴암의 구조

Ⅲ. 石窟庵 佛像에 나타난 法衣

석굴암의 구조에서 이미 설명한 것처럼 주실에 있는 불상의 종류로는 가장 독보적이라 할 수 있는 본존불을 위시하여 본존불 바로 뒤에 십일면관음보살상이 있다. 또한 주실의 입구에서 좌우로 천부상과 보살상이 각각 1구씩 있고 그 옆에서부터 안쪽으로 10대 제자상이 입상으로 나열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제자상들의 위쪽으로는 작은 감실

이 있어서 감실 안에는 편안한 좌상의 자세로 감실 상들이 봉안되어 있다. 주실에 있는 총 24구의 불상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으며〈표 1 참조〉 불상 하나 하나에 대하여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1. 本尊佛과 十一面觀音菩薩像

(1) 本尊佛

석굴암의 가장 중심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본존불은 연화대좌까지 합하면 그 크기가 상당히 큰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나 물리적인 특징을 떠나서 본존불이 갖고 있는 실질적인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일반적으로 불상이 봉안되기 위해서는 불신과 더불어 장엄구로서 대좌와 광배가 갖추어져야 한다. 지름이 2.8m나 되는 대좌 위에 안치되어 있는 본존불 역시 높이가 3.45m나 된다.

먼저 본존불의 두상을 보면, 두광의 일종으로 중생들을 빚추기 위해서 이마에는 백호가 빛나고 있으며, 머리카락은 곱슬머리에 소라같은 나발로 되어 있으며 머리위에는 정수리에서 살이 솟아올라 상투처럼 되었다고 하는 육계가 하나 있고 목에는 삼도가 있다.

본존불의 법의는 結跏趺坐한 본존불의 왼쪽 어깨만 가리고 오른쪽 어깨는 노출시킨 편단우견으로 착용되었다. 법의가 얇게 표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속에 착용되는 승각기나 군의 착용모습을 볼 수 없으며 법의만 왼쪽어깨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면서 정리된 규칙적인 미를 보여주면서 법의 끝자락은 결가부좌한 두 다리와 무릎을 덮으면서 부채살 모양으로 퍼져 표현되고 있어 매우 절제된 사실적인 미를 느끼게 하고 있다.(그림 2)

手印은 降魔觸地の 印相⁶⁾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道가 이루어져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극치에 달한 그 때에 생기는 불가사의한 승리자의 모습을 남김없이 보여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그림 3)

본존불의 광배는 매우 특이한데, 불상에 직접 부착시키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불상과 떨어져 뒤의 조금 높은 곳에서 둥근 蓮華瓣石의 형태로 되어 있어 광배라기 보다는 두광이라고 봄이 옳을 듯하다.



(그림 2) 본존불



(그림 3) 본존불의 수인모습

대좌는 石蓮臺로 맨 밑에 평면원형으로 된 二壇의 基臺가 있고 그 위에 伏蓮臺가 있다. 연꽃을 엮어놓은 모양인 伏蓮은 蓮瓣이 서른 두 개로 매우 웅대하고 화려한 조각방법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현재 남아 있는 신라의 佛像坐臺石으로는 가장 완전하고 우수한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본존불의 모습에서 볼 때, 간다라와 마투라로 대표되는 불상의 전체적인 표현 양식 중 나발이나 얇은 법의의 표현과 불신의 윤곽이 뚜렷함 등으로 보아 인도의 토착 문화를 모델로 하고 있는 마투라 양식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이 본존불은 신라통일 직후인 7세기 후반부터 유행하기 시작하여 통일신라시대 일대와 그후 고려 초에 이르기까지 계속된 여래좌상의 기본양식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 석굴암 불상 분석

계 목	높이 (m)	두 발	좌측 (법의)	내 의	좌 상 (결가부좌)	수 인	광 배	대 좌	기 타
본 존 불 (석가여대상)	3.45	유계·나발	편단우견			함미촉지인	원형두광	石蓮臺座	목(삼도)
11면관음보살상	2.2	10구불두·화분	천 의	상의	입 상	보병(左)·지연화	원형두광	仰蓮坐	삼도, 귀걸이, 목걸이, 영락, 안천, 족식등 장식 다양
천부상 제석천 범 천	2.11 2.14	보관 보관	천의 천의	상의 상의	입 상 입 상	불지(右), 금강지(左) 불지(右), 정병(左)	倒卵形 "	타원형 타원형	귀걸이, 목걸이, 안천, 족식장식, 광수포 걸침. 치마특징. 발찌 목걸이, 영락장식, 상안 선달착용 귀걸이, 목걸이, 영락, 팔찌, 족식
보살상 문수보살 보현보살	2.02 2.02	보관 보관	천의 천의	상의 상의	입 상 입 상	간반등(左) 경책(左)	원형두광 원형두광	연화좌 연화좌	목걸이, 영락장식, 상안 선달착용 귀걸이, 목걸이, 영락, 팔찌, 족식
10 계1상	2.08		편단우견	승각기·하의	입 상	보주(右), 수향로(左)	원형두광	타원형의하엽좌	앞이 뾰족하게 올라간 선발이 특징
대 계2상	2.08		통 견	치마	"	함강자세	"	하엽좌(무늬)	선달 착용(남방의 제자)
계 계3상	2.1		편단우견	군(치마)	"	여수상(右)	"	줄무늬하엽좌	앞이 뾰족하게 올라간 선발 특징
자 계4상	2.14		통 견	승각기·군	"	경책	"	"	"
상 계5상	2.2	모두	"	"	"	두손 각지검	"	하엽좌	"
계6상	2.04	삭발	"	군	"	발다라	"	연주문장식하엽좌	"
계7상	2.26		"	승각기·군	"	엄지와집게로원형표시	"	줄무늬하엽좌	"
계8상	2.12		"	군	"	두손 각지검	"	"	"
계9상	2.1		"	군	"	향로	"	"	방한화 착용(북방의 제자)
계10상	2.08		"	치마자락	"	"	"	"	선달 착용(남방의 제자)
계2상	0.86	보관	천의	치마	좌 상	경책(右)	두광, 신광	연꽃대좌	삼도, 팔찌, 귀걸이, 목걸이
계3상	0.75	"	천의	치마	좌 상	"	"	"	삼도, 팔찌, 귀걸이, 목걸이, 영락 특징
계4상	0.8	"	천의	치마	결가부좌	꽃(左)	"	"	삼도, 팔찌, 귀걸이, 목걸이
계5상	0.81	"	천의	치마	결가부좌	"	"	"	영락 화려
계6상	0.810	"	천의	승각기, 치마	결가부좌	실범인	"	사각형대좌	형태이상
계7상	.88	민머리	통견가사	승각기, 치마	결가부좌	정병(左)	"	연꽃대좌	삼도
계8상	0.86	보관(화분)	천의	치마	결가부좌	보병(左)	"	"	목걸이, 귀걸이, 팔찌 화려
계9상	0.84	보관	천의	승각기, 치마	결가부좌	"	"	"	귀걸이, 목걸이, 팔찌

기본 양식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 하나는 옷차림의 양식이 오른쪽 어깨를 들어내고 왼쪽만 감싸는 편단우견법이라는 점이고, 또 하나는 수인인데 오른손이 항마촉지인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양식은 중국에서도 7C 말부터 보이기 시작하여 당대에 들어와서 유행한 형식의 하나다. 특히 인도에 오랫동안 다녀온 중국의 승려들에 의하여 유행하기 시작한 새로운 불상형식의 하나로 중국과의 문물교류에 의한 영향으로 추측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두가지 특색을 지닌 불상의 양식은 통일 직후부터 시작되어 8세기에 절정을 이루었고 9·10세기가 지나서까지 유행하였다. 따라서 오늘날 남아 있는 석조여래좌상 가운데 뛰어난 것들은 대부분 이와 같은 양식을 지니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으뜸되는 것이 바로 이 석굴암 본존불로서 8세기 중엽 신라가 가장 번영하던 때에 국가가 힘을 다하여 조성된 대불인 것이다⁷⁾.

그러나 한편 이러한 완벽한 불상의 모습은 다소 엄숙하고 딱딱한 모습으로 비추어 지기도 하는데 이는 景德王의 王權強化에서 오는 絶對王權의 權威意識이 크게 부각되었다는 점과, 이에 따라 대두되는 사회의 경직된 분위기와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면도 있다.

(2) 十日面觀音菩薩像

觀音菩薩은 이 세상의 생명체 즉 중생이 이 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곧 바로 그 소리를 듣고서 그 소원을 성취시켜 주는 노력을 기우린다는 것이다. 그 이름은 觀音 또는 觀世音·觀自在·光世音菩薩이라고 불리우며, 그 의미는 “소리를 본다”는 뜻이라고 한다.⁸⁾

석굴암에서 십일면관음보살상은 바로 본존불의 뒷면 등근벽의 중앙을 차지하고 똑바로 서 있다. 그 어느 조각보다 정교하게 조각되어 그 우수성이 돋보이며 석굴암에서도 가장 중요한 본존불 바로 뒤에 배치된 이 조각의 양식적 특징은 무엇보다도 머리 위의 전면에 化佛이 1개가 있고, 좌우에 각 3개, 그리고 정상에 3개, 그 바로 뒤에 1개를 합쳐 11개의 얼굴이 있는 관음보살상이란 점이다.(그림 4)



(그림 4) 11면관음보살상의 두상

이 상의 특징은 보살상이므로 머리에는 보관을 쓰고 있는데 이 보관에 11개의 두상이 조각되어 있으며 목에는 삼도가 있다.

법의로는 양 어깨에서 팔꿈치를 휘감고 늘어뜨려지는 긴 것으로 하늘을 날 수 있는 옷인 천의를 걸치고 있는데, 이 천의 밑에는 영락이 가장 화려하게 치장되어 있고 치마인 상을 착용하고 있으며 장신구로서는 귀걸이, 목걸이, 팔찌, 발찌 등이 화려하며 손에는 지물로서 枝蓮花가 꽃힌 寶瓶을 들고 있다.(그림 5)



(그림 5) 11면관음보살상 도식화

광배는 원형의 두광이고, 대좌는 연꽃이 피어나는 듯한 연화좌로 되어 있다.

이 11면관음보살상의 모습은 두상을 제외하고는 일반 보살상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천의와 영락이 보다 화려하게 장식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인 점으로, 이는 나아가서 일반 여래상과 차별화를 통하여 보살이 중생을 위하여 공덕을 쌓음으로써 스스로의 몸을 깨끗이 닦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매우 강조된 듯 싶다.

2. 天部像과 菩薩像

(1) 천부상

이 천부상은 이미 구조에서 설명하였듯이 원형의 주실 입구 좌우에 있는 상들이다. 본존불을 향하여 오른쪽 상이 帝釋天이고 왼쪽 상이 梵天이다. 이 두 천부상은 大乘經典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와 일반 신도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존재이다.

제석천과 범천은 머리에 寶冠을 쓰고 가슴과 귀에 목걸이와 귀걸이를 치장한 것이나, 두광의 형태가 마치 달걀을 거꾸로 세워 놓은 모양 즉 倒卵形으로 그 테두리를 구슬로 엮은 이른바 蓮珠紋을 돌려 장식한 것이나, 대좌가 荷葉座인 점이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옷차림은 상이하어 범천상은 보살상의 일반적인 모습인 천의와 영락으로 치장한(그림 6) 반면, 제석천은 무복을 입고 그 위에 천의를 늘이고 있는데 장식성이 아주 뛰어나다.(그림 7)



(그림 6) 범천상



(그림 7) 제석천상

또한 손에는 각각 지물을 들고 있는데 범천은 오른손을 올려 불자를 들고 있고 내려뜨린 왼손에는 정병을 잡고 있으며, 제석천 역시 오른손을 올려 불자를 들고 있고 왼손은 가슴 밑쪽에 대고 금강저를

받들고 있다. 이 지물은 불상들의 권능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즉, 불자는 글자 뜻 그대로 중생들의 더러운 때를 털어내는 털이개요, 정병은 더러운 때를 씻어내는 깨끗한 물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⁹⁾

아직도 욕심을 끊지 못한 전상계(색계)의 존재들을 위해 대범천은 손에 불자와 정병을 가지고 마음의 때를 씻어 주고 털어내는 자비를 베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제석천이 받들고 있는 金剛杵는 금강석의 이미지를 빌어 결코 부서지지 않는 지혜를 상징한다. 삼십삼천 또는 이천을 다스리는 제석천은 여러 탐욕의 불길을 지혜로써 깨뜨려 주고 있다.

이 천부상은 무복을 착용한 점이 일반 보살상과 다소 차이점도 보이고 있지만 거의 유사한 차림새로 이 천부상의 특징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예가 많지 않고 경주 석굴암의 천부상이 가장 유명하다고 한다.

(2) 보살상

이 2구의 보살상은 천부상 옆에 있는 상이다. 제석천 옆에 있는 상이 문수보살이고, 범천상 옆에 있는 상이 보현보살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문수보살은 한역으로 文殊師利 또는 曼殊室利라고 음역되거나 妙吉祥 또는 妙德이라고 하며, 때때로 문수사리 法王子라고 불리는데 동자의 형상으로 묘사되기 때문이다. 문수보살은 지혜의 化身이라고 일컬어지며 순수하게 대승불교의 이상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존재이며 문수의 실천적 행원자라는 뜻을 가진다 해서 십대행원의 다짐을 상징하는 경책을 늘 들고 있는 보현보살과 짝을 이루면서 석가여래의 협시보살로서 三尊의 典型을 이룬다.¹⁰⁾

문수보살은 머리에는 새 깃털이 장식된 것과 같은 매우 아름다운 寶冠을 쓰고 있으며 귀걸이는 장식하지 않은 반면 영락과 천의의 장식성이 또한 뛰어나다. 천의 밑에는 치마를 착용하고 있는데 길이가 매우 길어 샌달을 착용한 발등만 보일 뿐 연화대좌 위에 늘어져 있다.(그림 8)

손에는 지물로서 오른쪽 손에 잔을 받들고 있으며 광배는 단순한 원형 두광인 반면 대좌는 연꽃이 피어나는 연화대좌에서 있는 입상이다.

보현보살은 문수보살보다는 보관이 단순한 반면 컷밥이 늘어질 정도의 투박한 귀걸이가 특징적이며 목에는 삼도가 있고 왼손에는 경책을 들고 있다.(그림 9)



(그림 8) 문수보살



(그림 9) 보현보살

하의로써 치마를 입고 그 위에 영락과 천의를 장식하고 있으며 목걸이와 팔찌도 장식되어 있다. 보름달과 같은 두광을 뒤로 한채 연화좌 위에서 있는 모습이 장식성이나 조각의 세련미를 통해 두 보살상 모두 아름답고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 十代弟子像

원형의 주실에서 구조상 원형형태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0대제자상일 것이다. 이 상들은 석가여래의 10대제자로써 본존불의 주위를 원형으로 둘러싸고 있는데 10분의 모습이 모두 나름대로 특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석가여래의 10대제자라고 하는데, 10대제자란 석가여래의 많은 제자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열분을 일컬어 부르는 말로서 다음과 같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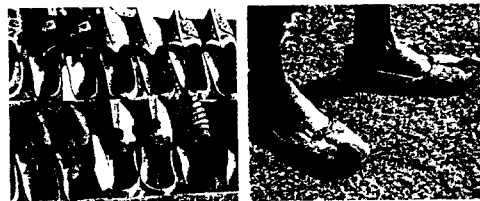
- ① 舍利弗(Sariputra) : 智慧第一
- ② 摩訶目犍連(Mahamaudgalyayana) : 神通第一
- ③ 摩訶迦葉(Mahakasyapa) : 頭陀第一
- ④ 須菩提(Subhuti) : 解空第一
- ⑤ 富樓那(Purnamaitrayani) : 說法第一
- ⑥ 摩訶迦旃延(Mahakatyaayana) : 論議第一

- ⑦ 阿那律(Aniruddha) : 天眼第一
- ⑧ 優波離(Upali) : 持戒第一
- ⑨ 羅睺羅(Rahula) : 密行第一
- ⑩ 阿難陀(Ananda) : 多聞第一

오늘날 석굴암의 이들 열 분의 조각상들은 통설에 따라 10대제자라고 하지만 어느 상이 어떤 제자를 나타내고 있는지는 쉽게 추정할 수 없다. 이들 열 분의 조상은 주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으로 배치되어 있다. 즉, 周壁의 맨 뒤의 중심에서 있는 십일면관음보살상을 중심에 두고 좌우에 각 다섯분이 차례로 배열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본존불을 향하여 오른쪽에서부터 차례로 제1상으로 명명하여 불상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① 제 1상

- 두광: 원형
- 오른손은 보주, 왼손은 수향노를 들고 있는데 뚜껑은 열린 상태
- 가사: 偏袒右肩法으로 걸쳤으나 어깨는 가린 상태임, 가사 안에 僧脚崎와 하의 착용
- 대좌: 긴 타원으로 얇게 돌을 새김된 荷葉座¹²⁾
- 신발: 앞이 뾰족하게 올라간 형태의 신발 착용 → 매우 특이한 점은 현재 인도에서 유행하고 있는 신발의 형태와 유사(그림 10)



(그림 10) 인도인의 신발: 신영훈 「석불사·불국사」

② 제 2상

- 두광: 원형이고, 두손은 모아 합장 자세
- 가사는 通肩으로 착용하여 양 어깨를 가리고 있고 앞에서 묶어 준 모습. → 가사 밑에 치마인 군 착용
- 대좌: 무늬가 있는 하엽좌.
- 신발: 샌달을 신고 있음.(그림 11) → 더운 지방

의 제자상으로 이해됨.



(그림 11) 10대제자상: 제2상

③ 제 3상

- 두광: 원형이고 얼굴은 턱수염과 주름으로 매우 나이들어 보이나 자세는 매우 깨끗한 모습임.
- 왼팔은 바짝 몸에 닿겨 어깨 높이로 올려 엄지와 집게 손가락은 살짝 맞대고 나머지 세 손가락은 편 자세이고, 오른손은 내려 여수닝¹³⁾을 들고 있음.
- 가사: 편단우견으로 착용하여 우측 어깨 완전 노출. 가사 밑에 군자락 보임.
- 대좌: 줄무늬가 장식된 하엽좌.
- 신발: 앞이 반원을 그리며 뾰족하게 생김.(그림 12)



(그림 12) 10대제자상: 제3상

④ 제 4상

- 두광: 원형이며 두 손은 가슴 앞으로 모으고

지물로 經冊 지참.

- 가사: 통건으로 가사를 걸치고 앞에서 묶음. 가사 끝자락 두 개가 밖으로 접혀져 있어 곡선의 주름에 의한 울동미, 가사 안에 승각기와 치마인 군 착용
- 대좌: 줄무늬가 있는 하엽좌.
- 신발: 앞이 반원을 그리며 뾰족하게 생김.

⑤ 제 5상

- 두광은 원형이고 10대 제자상 중 유일하게 정면상임.(그림 13)
- 가사: 가사를 두 어깨 모두 가리고 걸쳤는데 오른쪽 가슴부분은 가사를 들어 노출시키고 있음. 이로 인하여 승각기와 치마를 입은 모습 자세히 보임.
- 정면으로 서 있는 상으로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 옷자락을 펼쳐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모습임.
- 신발: 앞이 반원형으로 둥근 형태
- 대좌는 하엽좌로 둥근 줄무늬가 두개 있음.



(그림 13) 10대제자상: 제5상

⑥ 제 6상

- 두광은 원형이고 두 손은 깍지를 짝 끼고 있음.
- 가사: 통건으로 착용하고 가사 밑에 군자락 보임.
- 신발: 앞이 뾰족하게 원형 상태.
- 대좌는 간결한 하엽좌.

⑦ 제 7상

- 두광은 원형
- 왼손에 커다란 발다라(Patra ; 지물의 일종)을

들고 있음 → 오른손으로 공양물을 집어 넣거나 꺼내는 동작의 자세.

- 가사: 통견으로 착용하고 안에 승각기와 치마 착용.
- 선 자세의 단조로움이 두 손의 포즈와 특이한 옷주름의 변화로 생기 얻음.
- 대좌: 하엽좌에 구슬띠[연주문]가 장식.

⑨ 제 8상

- 본존불을 향하고 있는 자세로 두광은 원형을 비롯하여 여러 조상이 새겨진 15매의 板石이다. 이 판석 위로는 반구형의 작은 공간이 10개 마련되어 있는데 주실의 정면에서 좌우로 5개씩 있다.
- 왼손은 보이지 않고 오른손은 엄지와 집게손가락으로 원형을 표시.
- 대좌: 하엽좌에 줄 장식.
- 신발: 앞이 반원으로 뾰족.

⑩ 제 9상

- 두광은 원형이고, 두 손은 서로 맞대어 축원하는 모습.
- 가사: 통견으로 착용하였으나 매우 투박하게 묘사
- 대좌: 구슬로 장식된 하엽좌.
- 신발: 앞이 위로 뾰족하게 올라갔으며 신목이 있어 방한화를 착용한 듯한 모습 → 추운지방의 차림새임을 엿 볼 수 있음.(그림 14)



(그림 14) 10대제자상: 제9상

⑩ 제 10상

- 얼굴은 노안의 서양인 모습.
- 왼손은 자루를 잡고 있고 오른손은 향로의 입

언저리에 향을 넣고 있는 모습.

- 가사: 통견으로 착용하고 치마자락은 말아 올라간 모습.
- 발은 제2상과 동일하게 샌달을 신음(남방의 제자인 듯함.)

4. 龕室像

주실의 주벽을 구성하는 것은 십일면관음보살상을 비롯하여 여러 조상이 새겨진 15매의 板石이다. 이 판석 위로는 반구형의 작은 공간이 10개 마련되어 있는데 주실의 정면에서 좌우로 5개씩 있다.

이것이 바로 '龕室'로 여기에는 높이 1m 정도의 좌상들이 봉안되어 있는데, 현재는 8구의 상만 남아 있고 2구는 반출되어 비워져 있는 상태이다. 주실 입구에서 오른쪽부터 차례로 현재 비워져 있는 감실까지 감안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제 2상

이 상은 文殊菩薩로 추정되는 상으로 연꽃대좌 위에 매우 편안한 자세로 앉아 있다. 목에는 삼도가 있으며 머리의 보관은 단조로운 보관이나 보관 밑으로 긴 머리카락으로 보이는 것이 어깨를 덮고 있으며 오른쪽에 리본이 장식되어 있는데 이것이 대좌 위까지 늘어져 장식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손목과 상완에 팔찌로 장식하였으며 귀걸이는 어깨까지 닿을 정도로 매우 길게 늘어져 있다.

가슴에는 의습이 규칙적으로 보이고 天衣 자락은 왼팔 위에 걸쳐서 장식되어 있는데 매우 생동적이다. 장식이 없는 頭光과 身光에서 매우 절제된 미를 느낄 수 있으며 손에는 경책을 들고 있다.(그림 15)



(그림 15) 감실상: 제2상

② 제 3상

彌勒菩薩로 추정되는 상으로써 연화대좌 위에서 사색에 잠긴 듯한 자세로 앉아 있는데, 광배는 원형의 두광과 신광으로 되어 있다.

역시 목에는 삼도가 있고 목걸이를 하였으며 가슴에 장식품이 매우 특징적이다. 상완의 팔찌와 더불어 천의 자락이 돌보이며, 장식적인 보관 밑으로는 역시 긴머리카락이 흘러내리고 있다.

③ 제 4상(그림 16)

연화대좌 위에 결가부좌를 취하고 있는 자세에서 매우 엄숙함을 풍기는 상이다.

긴머리 위에 어울리는 보관과 귀걸이, 목에 늘어진 장식이 다섯줄 달린 목걸이, 팔찌 등으로 치장하여 한껏 아름답게 꾸미었으며 왼손 손바닥에는 화염이 감싼 보주를 들어올리고 있고 오른손은 손가락이 아래를 향하고 있다. 광배와 대좌는 앞의 상들과 동일하다.



(그림 16) 감실상: 제4상

④ 제 5상

연화좌 위에 편안한 자세는 제상들과 유사하나 손의 모습이 특징적이다. 오른팔을 직각으로 구부려 허벅지와 나란히 하고 손목을 곧추세워 엄지와 장지를 펴고 있어 부처의 수인 모습이다. 귀걸이와 영락이 역시 장식적이며 팔찌등과 어울려 매우 화려한 것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⑤ 제 6상

팔걸이에 몸을 비스듬히 기대고 앉아 있는 모습으로 상의 모습이 매우 특이하다. 광배도 없고 대좌는 사각형 대좌로서 다른 상들의 둥근 연화좌와는 다르다.

머리에 쓴 특이한 頭巾이나 옷차림은 보살이나 비구의 모습 어느 것으로도 이해 할 수 없다.

⑥ 제 7상

연화대좌 위의 상은 감실상 중 유일하게 머리를 깎은 등근 민머리상태이며 아무런 장신구도 갖추지 않은 단순한 옷차림으로 보아 반듯하게 앉아 좌선을 하고 있는 수행승의 모습임을 알 수 있다. 오른손은 가슴에 올려 설법인의 손 모습을 하고 있고 왼손은 배의 중앙에 놓고 손바닥에는 보주를 받들고 있으며 가사는 통견으로 착용하여 규칙적인 衣紋을 볼 수 있다.¹⁴⁾(그림 17) 가사 안에는 승각기를 착용하고 있다.



(그림 17) 감실상: 제7상

⑦ 제 8상

단정한 가부좌의 자세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 오른손은 무릎 아래쪽에서 아래를 향하고 있고 왼손은 가슴까지 들어올려 왼손에는 작은 정병이 얹혀 있는데 왼손의 높이만 다를 뿐 본존불의 수인인 향마촉지인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

영락과 천의의 장식성도 매우 뛰어나고 목걸이도 매우 화려하며, 머리의 보관에는 유일하게 化佛이 장식되어 있어서 관음보살로 추정되고 있으며, 또한 부처의 힘을 가시화 하면서 미적인 면을 상당히 중시하는 상으로 보인다.

⑧ 제 9상

왼쪽 입구에서 두 번째 감실에 놓인 보살상이다. 역시 오른쪽으로 살짝 튼 모습으로 자연스럽고 앉은 앉음새나 긴머리를 덮고 있는 화려한 보관, 장엄구 등은 앞의 여러상과 유사하다. 양손의 모습이 매우 특이하며 왼쪽 손바닥에는 꽃모양의 보병이 올

려져 있다.

IV. 結 論

석굴암 주실에 봉안되어 있는 24구의 불상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불상 하나하나 모두 나름대로 특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존불은 법의의 착용법이 편단우견법이며 수인은 항마촉지인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법의의 착용법이 당나라에서 들어와 유행하게된 불상의 대표적인 양식으로 통일 후 문물교류의 단면을 볼 수 있다.

둘째, 11면관음보살상과 감실상 등을 포함한 13구의 보살상들은 모두 치마를 입고 그 위에 영락과 천의로서 장식을 하고 있는 가운데 11면관음보살상의 영락이 가장 화려하게 빛나고 있어 뛰어난 장식성을 볼 수 있는 반면 천부상에는 영락이 보이지 않고 있다. 장신구 중 귀걸이나 팔찌, 발찌는 생략되기도 하였으나 목걸이는 모든 상들이 기본적으로 장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대좌는 연화대좌로 하엽좌보다는 격이 높은 대좌를 하고 있다. 그리고 천부상은 그 예가 많지 않아 본 천부상의 모습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유명하다고 한다.

셋째, 10대제자상들은 법의의 착용법이 편단우견법 보다는 통견법으로 착용하고 있어 통일신라시대 불상의 일반적인 가사착용법과 동일함을 볼 수 있으며 가사 안에 승각기나 군의 착용모습도 볼 수 있

다. 또한 광배나 대좌가 매우 단순하여 격이 낮은 면을 볼 수 있고 신발은 오늘날 인도인들의 신발형태와 비슷하여 매우 흥미로운 점이다.

넷째, 석굴암 불상들의 종합적인 특징은 8세기 불상의 특징에 비추어 볼 때 8세기는 統一新羅時代로 彫刻美術에서 최대 黃金基로 불상에 표현된 衣褶이나 법의의 표현이 매우 자연스럽고 사실적인 표현양식으로 신라 불상의 최대 걸작품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및 미주

- 1) 한국불교연구원, 석굴암, 일지사, 1989, p.38
- 2) <http://www.bulguksa.or.kr>
- 3) 천계서(1989), pp.15-33 참조
- 4) 황수영, 불국사와 석굴암, 교양국사총서 35, 1979, p.135
- 5) 불국사와 석굴암(1979), pp.137-152 참조
- 6)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며 땅을 짚어 부처의 영광을 증명하게 하는 손의 모습으로 석가모니만이 취하는 특정한 수임이다.
- 7) 황수영, 석굴암, 예경산업사, 1989, p.264
- 8) <http://kr.Buddhism.org>
- 9) 황수영(1989), p.266
- 10) 황수영(1989), p.267
- 11) <http://galaxy.channel.net>.
- 12) 하엽은 연의 잎이므로 꽃보다 격이 낮아 천부상이나 나한상의 대좌로 이용됨.
- 13) 비구가 지니는 여섯 가지 물건 중 하나로서 물주머니에 해당됨.
- 14) 신영훈, 석불사·불국사, 조선일보사, 1998, p.43